

■ S-553 ■

Comparison of surgical resection versus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primary gastrointestinal lymphomas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un Jung Choi, Ho Sup Lee, Lee Chun Park, Seong Hoon Shin, Yang Soo Kim

Background: The usefulness of chemotherapy to treat gastric lymphoma is well known. In this retrospective studies, comparing the efficacy of chemotherapy alone with that of surgery in patients with PGIL treated with chemotherapy alone, surgery alone, surgery followed chemotherapy, and chemotherapy followed radiotherapy was estimated. And prognostic factors associated with survival in PGIL were analyzed. **Patient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122 patients with primary gastrointestinal lymphomas diagnosed between March 1999 and December 2009 at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Of 122 patients evaluated, 73 had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LBL) (59.8%), 37 MALT lymphoma (30.3%), 7 peripheral T cell lymphoma (PTCL) (5.7%), 2 mantle cell lymphoma(MCL) (1.6%), 2 follicular lymphoma (FL) (1.6%), 1 small lymphocytic lymphoma (SLL) (0.8%). All patients were divided two groups. One included patients who were undertaken surgery with or without chemotherapy. The other included patients who were undertaken chemotherapy with or without radiotherapy. Chemotherapies were composed of cyclophosphamide, adriamycin, vincristine, and prednisolone (CHOP), cyclophosphamide, vincristine, and prednisolone (CVP) and other regimens for non-Hodgkin's lymphoma. Dexamethasone, cytarabine, and cisplatin (DHAP), mitoxantrone, ifosfamide, and etoposide (MINE), ifosfamide, methotrexate, and etoposide (IMVP), etoposide, cytarabine, cisplatin, and methylprednisolone (ESHAP), high-dose methotrexate and other regimens were used in patients with relapsed or refractory lymphomas. Result: In the OP±CTx (n=42) and CTx±RTx (n=80) group, distribution percentage according to sex ratio, age and ECOG performance status was similar. Median follow up was 47.95 months. Estimates of 5-year survival rates and relapse free survival rates were 77.78% vs. 68.04% and 68.04% vs. 68.69%, respectively. The prognostic factors in both groups were LDH and ECOG.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in primary gastrointestinal lymphoma, a similar 5-year survival rate is to be expected with either surgery plus chemotherapy or chemotherapy plus radiotherapy.

■ S-554 ■

기관지 침범을 동반한 비호즈킨 림프종 1예

중앙대학교병원

*조선영, 황인규, 최재철, 오민석, 박지훈

서론: 비호즈킨림프종에서 흉곽내 침범은 병이 진행함에 따라 43%에서 발견되며 특히 종격동이나 폐 실질이 주로 침범된다. 하지만 진행된 병기에서도 기관내 침범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며 Dawe 등이 1955년 처음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미만성대형 B세포림프종에서 기관내 침윤을 보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례:** 64세 여자 환자가 4개월 전부터 발생한 전신쇠약감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5 kg의 체중감소와 야간발한을 호소하였으며 과거력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흉부청진상 전 폐야에서 거친 호흡음이 들렸으며 좌하엽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복부진찰에서 간과 비장은 만져지지 않았다.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800/μL(호중구 8%, 림프구 %, 단핵구 %, 호산수%), 혈색소 9.6 g/dL, 혈소판 570,00/μL로 범혈구감소증을 보였다. 일반생화학검사서 AST 227IU/L, ALT 62IU/L, ALP 101IU/L, 총 빌리루빈 2.5 mg/dL, 직접 빌리루빈 1.1 mg/dL, 총 단백 5.4 g/dL, 알부민 3.0 g/dL, BUN 22 mg/dL, creatinine 1.2 mg/dL, LDH 4832 IU/L 이었다. 흉부 단순 촬영 검사에서 전 폐야에 다발성의 작은 결절이 있었고 이후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양 폐야에 다발성의 작은 결절이 있으며 좌하엽후저부에 경화를 동반한 기관지 확장증 소견을 보였으나 림프절 종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저음영의 작은 결절이 간과 비장, 양쪽 부신, 피하조직과 후복막에서 관찰되었으며 복부 내 다발성 림프절 종대가 있었다. 내원 이후 환자가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위저부에 1×1 cm 용종이 관찰되었다. 환자의 등에서 만져지는 피부결절과 상부위장관내시경에서 관찰된 용종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미만성대형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 골수천자 및 조직검사서 림프종의 골수 내 침범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가 열이 지속되며 좌하엽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어 폐렴 진단 하에 항생제를 시작하고 원인균 감별을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였다. 기관지에 다발성의 작은 결절이 관찰되었고 왼쪽 주기관지에도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경기관지세척술과 경기관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미만성 대형 B세포림프종으로 환자는 병기로 확진 후 전신항암화학요법을 2회 시행받았지만 약 6개월 후 병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